

→ 2005년도 정기총회

톱슨 ISI 방문기

허 선

(한림의대 기생충학, 정보관리위원회 간사)

톰슨 ISI 방문기

허 선

(한림의대 기생충학, 정보관리위원회 간사)

서 론

2004년도 11월 조승열 선생님으로부터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지원하는 필라델피아의 Thomson ISI(Institute for Science Information) 사 방문자로 졸자를 추천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방문하겠다고 답을 하고 나서 여러 생각을 하였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나라 사람은 일단 무슨 평가 도구를 만들어 평가를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일사분란하게 거기에 잘 맞추어 평가받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쟁심이 대단하여 비슷한 분야에서 어떤 평가를 다른 곳보다 최소한 낮게 받지 않아야 한다는 굳은 결의가 있음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다. 그 한 예가 SCI(Science Citation Index) 등재 잡지냐 아니냐 하는 것이 우리나라 학술지의 생사를 쥐고 있는 점이다. 그리고 최근 의협에서 창립 97주년 종합학술대회에서 선정한 우리나라의 대표 의과학자 20 명이라는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공개된 학자의 대표 논문 10 편을 살펴보니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실린 논문은 한편도 없었다. 외국에서 공부하는 우리나라 사람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학자가 우리나라 학술지에 자신의 대표 논문을 한편도 신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영예를 주는 것이 냉정한 21 세기 초 우리나라 의학계의 현실이다.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 학술지에 훌륭한 업적은 신지 않고, 또한 우리나라 학술지에 실으면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굳은 신념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나라 학술지를 모두 없애면 SCI 학술지에 내어 살아 남을 사람은 살아 남는 상황이 되면 지금보다 적어도 SCI 학술지에 실리는 논문 수는 몇 배는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냉혹한 상황은 쉽게 오지 않을 것이고 그럴 필요도 없다. 특히 의학 분야는 문화 차이가 매우 중요하여 다른 곳에서는 관심 없는 주제가 어느 지역에서는 매우 큰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풍토병이 있고, 인종마다 질병에 대한 예민도도 다르고 역학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의 의학학술지는 우리나라 사람의 질병에 대한 정보를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에 제공하여 인류 건강에 이바지하는 큰 역할이 있다. 그렇게 우리 학술지를 유지한다면 편집인의 소박한 꿈은 우선 학술지 평가를 받아 코리아메드에 등재하고 학진에 등재한 뒤, 국외로는 메드라인에 등재 후, SCI expanded에 등재, 나아가서 SCI core 학술지로 키우는 것이다. 또한 SCI 학술지가 되면 인용도지수에서 상위 50%, 그 후 30% 그리고 상위 10% 이내로 들어 그 분야 최고의 학술지로 키우는 것이다. 그러면 일단 학술지에 대한 국내외 대우가 달라진다. 즉 투고 논문 수가 늘어나서 일정 수준 이하의 논문을 게재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기회가 많아진다. 그런 면에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우리나라의 학술지를 키우기 위한 투자로 8 명의 편집인 또는 편집위원을 추천하여 SCI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상업회사인 Thomson ISI 에 파견하기로 하는 것은 우리나라 학술지의 현실을 잘 표현하는 행사였다. 목적은 해당 학술지를 SCI expanded 에 등재하거나 SCI expanded 학술지면 SCI core 학술지로 등재를 요청하는 것이다. 물론 직접 방문하여 요청한다고 바로 그 곳에서 들어 줄리는 없고 심사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은 자명한 일이지만, 한국에서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조금이라도 그곳의 실무자에게 열심히 우리 학술지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는, 동기 부여는 될 것이라고 여겼다. 한편으로는 졸자는 예외이지만 우리나라의 각 분야마다 최고 수준의 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편집인이 방문하여 상업회사에 가서 아쉬운 부탁을 한다는 것이 선비로서 조금은 계면쩍은 일이 아닐까 여기기도 하지만, 편집인이 사명감을 가지고 수행하는 데 그런 유교정신은 누구에게도 껄념할 일이 아닐 것이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각 학술지 발전을 위하여 이런 도움을 준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 고마울 뿐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필라델피아를 방문하여 Thomson ISI 사 직원과 나눈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하고 담당 직원을 소개하려고 한다.

본 론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국내 과학기술분야 학술지의 SCI 등재 촉진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2004년도 12월 8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소재 Thomson ISI 본사를 방문 계획 하고 내부 심사를 거쳐서 Table 1과 같은 학술지를 2004년도 지원 학회로 선정하였다. 경비는 이코노미 왕복, 현지 체제비를 지원하였다.

2004년 12월 8일 아침 8시에 시내 호텔에서 방문객을 모두 만나 아침 식사 같이 한 뒤, 오후 1시 30분에 방문한 Thomson ISI 사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3501 Market St
Philadelphia, PA
19104-3302, USA

회사에 들어가자 학술지 선정팀장인 Testa 선생이 나와 맞았다. 일층에 안내 창구가 있어 이름을 적고, 이름표를 붙인 뒤, 2 층의 회의실로 향하였다. 면담은 한국 측 9 명(전기 학회에서 코넬대학에 연수 온 분이 자발적으로 참여)과 ISI 측 7 명이 2층의 회의실에서 만났다. ISI 측은 모두 잡지 선정에 관여하는 분으로 Director, Manager 및 각 분야 5 명이 었다. 우리측 명단 및 ISI 명단은 다음과 같다(Fig. 1).

Table 1. Academic Societies and its journals selected to be presented in Thomson ISI

학회명	학술지명
대한구강생물학회	International Journal of Oral Biology
대한의학회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대한전기학회	International Transaction on Power Society
제어·자동화·시스템공학회	Journal of Control, Automation and Systems Engineering
한국동물자원과학회	Journal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한국미생물학회	The Korean Journal of Microbiology
한국식물학회	Journal of Plant Biology
한국식품과학회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 방 문 객

Jaeseok Choi, Cornell University

김각균,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김정윤, 충남대학교 미생물학과

문승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컴퓨터 공학부

윤석후, 한국식품연구원 선임본부장

이승구,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산과학부

하종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공학부

허 선, 한림의대 기생충학교실

홍주봉,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유전공학연구소



Fig. 1. Meeting of ISI Editors and Korean Editors, in Thomson ISI, December 8, 2004. From right, upper lateral side, clockwise direction.

Kim, Kack-Kyun, President, International Journal of Oral Biology

Hong, Choo-Bong, Editor, Journal of Plant Biology

Rodney Chonka, Editor, Physical, Chemical and Earth Science, Thomson ISI

Chang Liu, Editor, Selective Coverage, Thomson ISI

Maureen Handel, Manager, Journal Selection, Thomson ISI

Yoon, Suk-Hoo, Editor,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Kathleen Michael, Sr. Editor, Current Content/Life Science, Thomson ISI

Mariana Boletta, Sr. Editor, Science, Thomson ISI

M. Luisa Rojo, Editor, Current Content/Clinical Medicine, Thomson ISI

James Testa, Director, Editorial Department, Thomson ISI

Kim, Jeong-Yoon, Editor, Korean Journal of Microbiology

Huh, Sun, Delegate of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Lee, Seung-Koo, Editor,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orticultural Science

Ha, Jong-Kyu, Editor, Journal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Moon, Seung-Ill, Editor, International Transaction on Power Society

Choi, Jaeseok, Editorial Member, International Transaction on Power Society.

□ Thomson ISI 측 면담자

Mr. James Testa, Director, Editorial Department - 잡지 선정의 책임자

Ms. Maureen Handel, Manager, Journal Selection - Testa 선생 아래 직급으로 부책임자

Mr. Rodney Chonka, Editor, Physical, Chemical & Earth Science

Ms. Chang Liu, Editor, Selective Coverage

Ms. Kathleen Michael, Sr. Editor, Current Content/Life Sciences - 기초의학 및 생명과학 담당

Ms. M. Luisa Rojo, Editor, Current Content/Clinical Medicine - 임상 의학 잡지 담당

Ms. Mariana Boletta, Sr. Editor, Science

간단히 각자 자기 소개 후, 각 학회지에 대한 소개를 한 사람 당 10 분 이내씩 하기로 하고 그후 질의 응답 시간을 갖기로 하였다. 회의실의 샘플이 너무 느려서 코넬 대학에서 온 최재석 선생의 공책샘플(Notebook computer)를 이용하였다. 순서는 줄자가 가장 먼저하겠다고 자원하여 발표를 시작하였다. 제목은 “How Korean medical doctors try to increase the quality and format of their journals?” 으로 발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Difficult environment of the Korean Medical Journals

SCI 잡지가 아닌 국내 의학잡지의 고전하는 현실을 설명.

Actions by Korean medical doctor to overcome that environment

퍼브메드나 SCI 잡지가 아닌 대부분의 국내 의학학술지를 전세계에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KoreaMed, KoMCI Web을 개통하고, 학술지 평가 및 편집인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지속하여 학술지 질을 올리기 위하여 노력함을 설명.

Glimpse of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JKMS)

우리 나라 의학계의 대표적인 종합의학학술지의 발전 계획 및 정책 설명.

1. Promotions of papers of general medical interest
2. Maintenance of peer review system

3. Recommendation of citation of Korean references
4. Active participation in NLM Free journal policy
5. Promotion of international authorship
6. Model role of Korean medical journal

Future actions of Korean medical doctor to maintain the quality of journal

1. Evaluate the journals continually every 7 years.
2. Enforce the training program for editors and authors
3. Expand the KoreaMed database retrospectively back to 1945.
4. Apply the MeSH system to KoreaMed database to help effective search.
5. Open the Korean Medical Citation Index Web to facilitate search for Korean journal papers (to be opened in 2005).
6. Encourage the application of the journals preevaluation to Thomson ISI and/or PubMed.

마지막으로 국내 의학 학술지가 SCI 에 등재 요청하였을 때, 등재율이 높기를 바란다고 마무리 함. 다른 학술지 편집인과 다르게 JKMS 에 대한 설명 뿐 아니라 우리 나라 의학 학술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룸.

그 외, 다른 학술지의 편집진은 자신의 학술지의 현황 및 발전 계획에 대하여 각각 초점을 다르게 하여 발표하였다. 매우 인상적인 내용은 구강생물학회에서 영문 학술지를 키우기 위하여 애쓰다가 좌절하고, SCI 잡지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얼마나 원고 수집이 어렵고, 국제 학술지로 키우는 것이 힘들었는지에 대하여 “Nothing to lose” 라는 주제로 발표한 것임. 이런 평가 체계에 의하여 한 나라의 특정 분야 학술지 운영의 어려운 현실을 잘 표현하였다.

토의 시간에는 잡지의 일반적인 형식에서 세세한 지적(예를 들면 학술지의 영문명 약어 일관성이 없을 때)이 있었고, 선정기준에서 total citation 과 impact factor 는 고려하지만 immediacy index 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 그 외 학술지 발행이 기간을 맞추는 것, 독

창성 있는 내용, 국제적인 저자 구성,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 무엇이 흥미있는 내용인지 초점을 맞추는 것 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Ms. Kathleen Michael 의 JKMS 에 대한 평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JKMS 가 곧 SCI core 잡지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 선정 사유는 우리가 아는 몇 가지 기준에다가 새로운 사실이 덧붙여졌다. 선정 사유는

- 가. impact factor(journal rank), Medicine, General and Internal 분야에서 58/102 (상위 56.8%)
- 나. 낮은 자가인용도(self-citation rate), 4%
- 다. 발간 기일 엄수
- 라. 연구비 수혜 논문의 비율 -- 매우 높음
- 마. 전문(full text)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 여부 -- 전문 접근이 쉬움

로 각 항목에서 JKMS 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위 항목 중 자가인용비율, 연구비수혜논문 비율, 전문 접근 등은 그 동안 SCI 잡지 선정할 때 검토 항목으로 알려지지 않은 내용으로 SCI core 로 선정시 고려하는 내부 검토 사항일 것이다.

JKMS 의 core잡지로 선정한다는 말을 듣고 모든 한국측 참석자가 손뼉을 치며 기뻐하며 축하하였다. 이 선정 결과는 편집인 조승열 교수 이하 편집위원, 투고자, 심의위원, 창간호부터 열정을 다한 과거 편집인의 노력과 의학회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은 된 것이다. 3시 30분에 모든 회의를 마치고 복도에서 기념 사진 촬영을 하였다. 각 분야의 담당자와 한국측 편집인이 화기애애하게 인사를 하고, 다시 Market Street으로 나와, 일정이 있는 한 분은 일찍 다른 도시로 돌아가고 다시 다운타운까지 걸어서 8 사람이 저녁 회식을 하러 갔다. JKMS 의 core잡지 등재 기념으로 즐자가 차이나타운의 한 음식점으로 모시고 가서 약 2시간 가량 다 먹을 수 없을 만큼 끝없이 나오는 요리를 포식하고 중국술도 마시는 일정을 마쳤다. 200 달러를 지출하였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저렴한 가격이다.

필라델피아공항 가까운 곳에 있는 홀리데이인 호텔에 돌아와서 즉시 조승열 교수께 기쁜 소식을 글월로 전하였다(Fig. 2). 다음날(2005년 12월 9일) 아침 JKMS 편집위원회에서

이 글월을 읽으면서 모두들 기뻐하였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다.

토의시간에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는 심사를 요청하였는데, 운명이 어떻게 되었냐고 담장자인 Ms. Kathleen Michael께 질의하였다. 답은 2004년도 3월호부터 심사를 하기 시작하여 2004년도 12월호가 발행 일자를 준수하는 지를 보고 검토하여 몇 달 이내에 답을 한다고 하였다. 2005년도 3월호가 이미 나왔는데도 2005년도 3월 15일 현재 아직 Web of Science에서 등재 잡지 목록에 올라가지 않았다. 이 잡지는 2003년도 인용도지수 0.4, 2004년도 역시 인용도지수 0.4 이고, 발간일도 잘 맞추고, 형식도 SCI가 원하는 대로이고, 외국인도 투고하여 국내용 만은 아니고, 더구나 전체 논문의 약 90% 가 연구비 수령 논문이므로, 이제는 SCI expanded로 올라갈 만하다고 여기는 데, 애가 탄다. 인용도 지수 0.4면 현재의 기생충학분야 SCIE 잡지의 최하 인용도 지수 정도이고 만약 자가인용도를 추가한다면 그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서 지금 등재된 것보다는 높을 수도 있는 정도이다.

이렇게 숙제를 잘 마치고 하루를 필라델피아에서 더 쉬고 귀국하였다. 12 월초로 수업을 다 마치지 못하여 한참 분주한 때였지만, 3박 4일 잘 쉬었고 큰 어려움이 없이 맡은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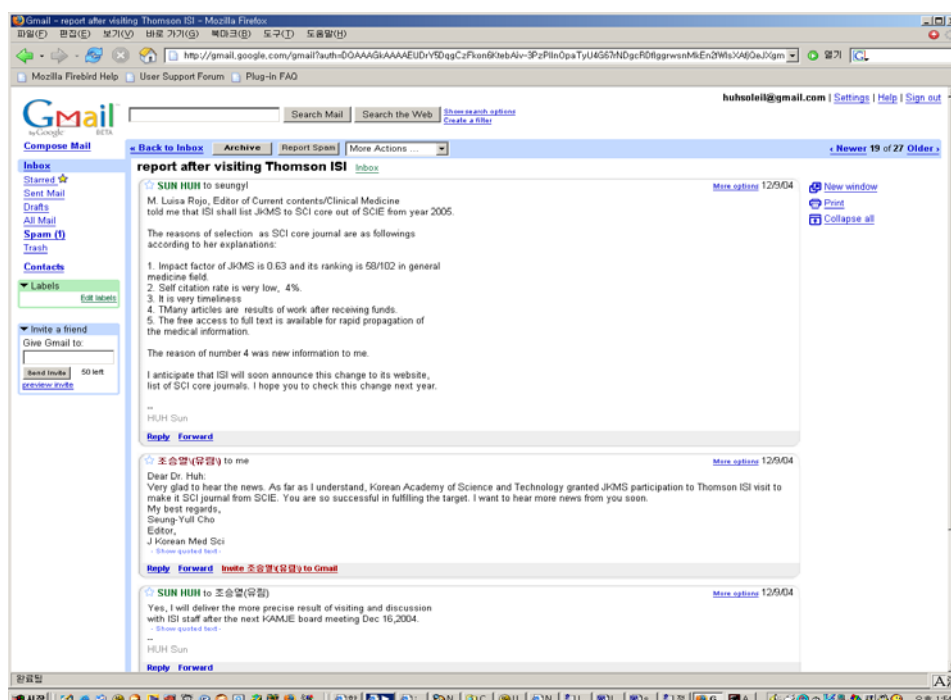


Fig. 2. Email between Sun, visitor and Dr. Cho, Editor of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결 론

이런 방문 행사는 아마도 2005년도에서 계속 사업으로 과학기술한림원에서 해당 학술지를 선정하고 경비를 지원할 것으로 여긴다. 그렇다면 의학계에서도 최소 한 명의 편집인이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어느 분이 방문하던 이 발표 내용이 사전정보로 도움이 된다면 다행이다. 직접 방문함으로써 SCI 등재 학술지가 되는 데 더 필요한 정보를 얻은 것은 많지 않다. core 잡지가 되는 데, 자가인용율이 낮고, 연구비수혜 논문 비율이 높고, 전문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도움이 된다는 점은 새로운 사실이나, SCI expanded 에 등재는 이미 Thomson ISI 사에서 알리는 내용보다 더 새로운 내용은 없다⁽¹⁾. 우리 나라 의학 학술지 중 SCI core 나 expanded 에 등재된 것은 4 종이다. 협의회 단체의 학술지 146 종에 비하면 2.7%의 비율이다. 우리 나라 의학학술지가 어떤 기준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평가를 받기 위하여 편집인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잘 알고, 모두 열심히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일하고 있다. 투고하는 국내 연구자의 수준도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빠른 시일 내 우리 회원 단체 발행 잡지 중 SCI 등재 학술지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1. SCI JOURNAL SELECTION PROCESS <http://www.isinet.com/selection/>